‘알 꽉차고 맛 일품’ 꽃게가 왔어요

진도 서망항 매일 3~5t 위판
kg당 3만5000원~4만원
청정바다서 통발로 잡아 ‘인기’

어민들이 진도 서망항에 위판을 위해 들어온 꽃게를 손질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전국 꽃게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진도 해역에서 ‘봄 꽃게 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진도 서망항은 조도면 외병·내병도 일원에서 꽃게 통발마다 제철을 맞아 갓 잡아 올린 봄 꽃게 위판으로 분주하다.

조도면 해역에는 매일 20~30여 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출어, 척당 250~300㎏의 꽃게를 잡아 올리고 있다.

1일 위판량은 3~5t이다.

지난 3월 말부터 진도군수협을 통해 위판된 꽃게는 21일 현재까지 100여t, 위판고는 40여억원이다.

진도 해역은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고 모래층이 알맞아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특히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해역인 진도는 지난 2004년부터 바닷모래 채취 금지와 함께 매년 1억원 이상 꽃게를 지속적으로 방류했다.

통발로 잡아 올려 다른 지역 꽃게보다 상품성이 좋아 구매를 위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진도군수협 경매 위판 가격은 ㎏당 3만5000~4만원이다.

진도 꽃게 통발협회 김영서 선장은 “봄을 맞아 진도 앞바다에서 싱싱하고 알이 꽉 찬 진도산 봄 꽃게가 잡히기 시작했다”면서 “진도 꽃게는 꽃게찜, 탕, 무침, 간장 게장 등으로 인기가 높아 전국의 대형마트, 수산시장 등에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연두빛 가득 곡우절’… 해남 녹차 수확 한창

두륜산 도립공원 녹차밭도 개방

인부들이 설아다원에서 곡우절 햇차를 수확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봄을 맞은 다원이 빼꼼히 얼굴을 내민 연두빛 여린잎들의 향기로 가득하다.

해남군에 따르면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穀雨) 절기를 즈음해 해남 설아다원의 햇차 수확이 한창이다.

곡우 전 수확한 햇차는 우전차(雨前茶)라 하여 햇차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친다.

이른 봄 가장 먼저 딴 찻잎으로 만들어 첫물차라고도 하며, 은은하고 순한 맛이 일품이다.

해남 두륜산 자락에 위치한 해남 설아다원은 유기농 차 재배지이자 차 체험과 한옥스테이, 전시, 음악, 공연 등 자연 속 쉼과 예술을 결합시킨 복합문화 예술농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해남군 두륜산 도립공원의 녹차밭도 지난 20일부터 전면 개방했다. 이 곳에서는 오는 5월 30일까지 방문객들이 직접 채엽, 덖어서 녹차를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륜산 녹차밭은 두륜산 입구 약 2만8200㎡가 조성돼 다도인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들의 녹차 체험장으로 인기가 높다.

녹차체험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잎녹 채취 때 사용할 바구니를 제공받아 채취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된 녹차 체험장에서 덖음 시설을 이용해 녹차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체험비는 5000원이다.

음다실에서 직접 만든 차를 마셔볼 수 있는 다도 체험도 할 수 있다.

해남은 조선 차의 중흥기를 이끈 다성(茶聖) 초의선사가 40여 년간 은거한 대흥사 일지암이 있고, 최적의 자연환경에서 품질 좋은 수제 녹차가 생산되면서 우리나라 전통차의 명맥을 잇는 다도의 성지로 꼽히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 양파·마늘 수확기 자원봉사자 모집

전국 최대 양파·마늘 주산지인 무안군은 수확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고령 농업인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올해도 농번기 인력난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기획단(TF)을 구성하고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고령농, 여성단독농, 소규모 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영세농가에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신청 기간은 5월 20일까지다.

농업기술센터(농정과·친환경농업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일손 지원 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공무원의 경우 상시학습 시간도 인정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완도 아열대 과수 비파 본격 출하

당도 높고 과즙 많아 맛 ‘일품’

완도의 비파나무.

완도에서 아열대 과수로 재배되고 있는 조생종 비파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파를 재배하기 시작, 현재 완도 114개 농가(35㏊)에서 재배 중이다.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되는 비파는 6월부터 7월까지 수확하며, 하우스 비파는 겨울부터 온도 등을 꾸준히 관리해 최소 2개월 이상 빨리 출하돼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완도에서는 126t이 생산됐으며, 올해 생산량은 130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 비파는 당도가 평균 13브릭스로 과즙이 많고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비파나무가 자라고 있는 가정에는 아픈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파는 각종 효능을 갖춘 웰빙 식품으로 알려졌다.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 비타민A, 칼륨 등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잎은 면역력 향상, 피부 노화 방지, 충치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비파는 과실은 물론 농축 주스, 잎차, 와인, 식초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며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완도 비파를 꼭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 해삼 이어 전복 21만마리 방류

신안군은 지난 4월 12일 해삼 21만 마리 방류에 이어 19일 흑산면 진리2구 외 6개 지선에 전복 21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에 방류한 전복은 관내 종자생산업체에서 부화된 각장 4㎝ 이상의 건강한 전복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검증된 종자이다.

전복은 재 포획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어촌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류 품종으로 금번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함께 어촌계(어업인)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안군은 금번 방류해역은 해조류가 풍부하고 저질이 암반으로 되어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마을어장으로 방류효과 극대화를 위해 방류수역에 대한 어린 전복 포획금지(방류 후 1개월) 준수를 어촌계(어업인)에 당부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5월 중 추가적인 해삼과 감성돔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인공어초 투하 등 수산생물 서식지 기반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여 풍요로운 어촌 실현과 함께 살고 싶은 신안군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영광군, 읍·면순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영광군이 지역 주민들의 예산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군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읍·면 순회 2022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예산학교는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관사회단체장, 이장,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재정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운영현황 ▲참여방법 등을 전문강사를 통한 강의형태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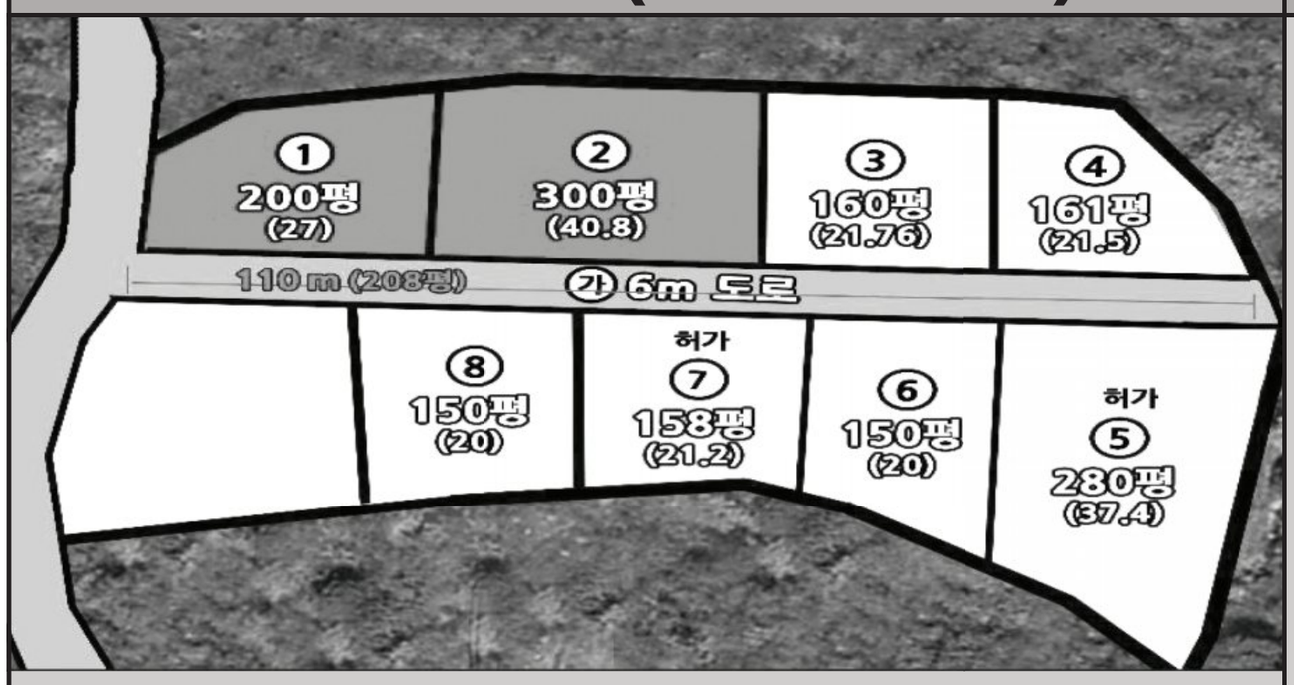
앞서 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와 예산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인 (사)지역미래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군정발전 전반에 대한 군 정책사업 ▲읍·면 단위 지역발전 제안 지역사업 ▲청년주도의 청년발전 제안사업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고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북구 신안동(다세대빌라)▶감정가 3억9천 -> 1억7천 (3/23)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2억5천 (4/14)
	광산구 덕림동(임야)▶ 감정가 21억 -> 15억 (4/15)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4천 (4/15)
	동구 지산동(임야)▶감정가 19억 -> 13억 (4/22)
	광산구 하남동(주택)▶감정가 7억8천 -> 5억5천 (4/22)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감정가 95억 -> 42억 (4/26)
전남	화순군 도곡면(임야)▶ 감정가 7천 -> 7천(3/3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4/6)
	나주시 빛가람동(주차장)▶ 감정가 17억 -> 12억 (4/11)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38억 (4/11)
시외	경기도 수원시(근린주택)▶감정가 15억 -> 7억4천 (3/31)
	경북 경주시(다가구원룸)▶감정가 15억 -> 5억4천(4/5)

010-6670-9800